

<표> '11년 1분기~'12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10년	2011년				2012년		
	2010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1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1분기 (전년동기)
게임	5,611.5 (10.4%)	1,654.9 (5.7%)	1,741.8 (5.3%)	1,792.8 (2.9%)	2,790.8 (55.7%)	7,980.3 (42.2%)	2,237.9 (-19.8%)	35.2%
지식 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45.4 (28.8%)	7.7 (-51.0%)	15.6 (102.6%)	15.0 (-3.8%)	85.8 (472.0%)	124.1 (173.3%)	15.7 (-81.7%)	103.9%
방송	769.9 (139.4%)	253.0 (3.3%)	443.8 (75.4%)	439.3 (-1.0%)	341.4 (-22.3%)	1,477.5 (91.9%)	240.6 (-29.5%)	-4.9%
광고	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115.8 (-7.0%)	13.5 (-42.6%)	47.4 (251.1%)	50.7 (7.0%)	88.4 (74.4%)	200.0 (72.7%)	139.3 (57.6%)	931.9%
음악	452.7 (85.2%)	60.1 (84.9%)	127.8 (112.6%)	175.5 (37.3%)	510.9 (191.1%)	874.3 (93.1%)	324.1 (-36.6%)	439.3%
애니메이션/ 캐릭터	703.7 (35.7%)	180.3 (-4.3%)	204.3 (13.3%)	187.2 (-8.4%)	218.2 (16.6%)	790.0 (12.3%)	132.0 (-39.5%)	-26.8%
합계	7,699.0 (21.7%)	2,169.5 (4.8%)	2,580.7 (19.0%)	2,660.5 (3.1%)	4,035.5 (51.7%)	11,446.2 (48.7%)	3,089.6 (-23.4%)	42.4%

- 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'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'10년 4분기까지는 'CJ 인터넷' 및 '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'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- 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- 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, '이퓨처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밤', '팬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'나우콤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- 5) 영화 중 '미디어플렉스', '키이스트', 'CJ E&M', '제이콘텐트리'에서 수출 발생
- 6) 음악 중 'CJ E&M', 'SM엔터테인먼트', '소리바다', 'JYP엔터테인먼트', 'YG엔터테인먼트'에서 수출 발생
- 7) 애니메이션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와 '스텝싸이언스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바른손'은 '12년 5월 31일 현재 실적미발표로 분석에서 제외. '오로라월드'는 '11년 4분기는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3분기 수출액 비중 적용

□ 2012년 1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

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,0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.4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3.4% 하락
 - '10년 1분기 전분기대비 3.6% 하락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'11년 1분기부터는 비교적 견실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'12년 1분기에 다소 하락
- 게임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,2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.2%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19.8% 하락. '11년 1분기 이후 주도적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

수출액 성장을 견인
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72.4%(69.2%)¹⁾로 전분기대비 3.2%p 상승했으나 '11년 1분기(76.3%)에 낮은 수준
- '12년 1분기 수출액에서 대형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, CJ E&M 게임부문은 전년동기대비 35.4%, 256.7% 증가. 이는 대형게임 개발력과 이에 따른 자금력 보유 등 대내외 경쟁력에 기인. 대형업체 중 액토즈소프트는 '10년 1분기부터 '11년 2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다가 3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'12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.7% 증가
 - ※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'11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.1% 증가했으나 '11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'12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17.5% 감소
-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게임빌, 웹젠, 이스트소프트, 컴투스, 한빛소프트, 엠게임, 제이씨엔터테인먼트, 게임하이 등 8개 업체는 '11년 4분기에 이어 스마트게임 등 신작게임들의 국내외 흥행게임들의 호조로 '12년 1분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율 상승
 - ※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 및 게임빌은 국내외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들의 보급증가 등 관련 게임수요 인프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'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수출증가를 보임. 컴투스 및 게임빌의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4.9%(207.7%)²⁾, 436.4%(274.1%) 증가
 - ※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및 게임하이는 흥행성공 게임들의 수출호조로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23.4%(124.8%)³⁾, 60.6%(187.8%) 증가
-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'10년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'11년 4분기에 다소 높은 상승했으나 '12년 1분기 들어 다소 하락. 향후 고성능의 스마트기기 출현 등 시장 인프라 성장이 지속되고 게임개발사들의 흥행작 출현이 이어질 경우 실적 상승 전망
 - ※ '10년 3분기에서 '11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각각 2.3%, 12.1%, 5.7%, 5.3%, 2.9%, 55.7% 상승

● 방송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.9% 감소했으며

1) 2011년 4분기 수출액 비중
2) 2011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3) 2011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전분기대비 29.5% 하락
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7.8%로 전년동기 대비 3.9%p 감소

※ 지방과방송사인 iMBC는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39.2% 증가. 종합유선방송채널인 CJ 오쇼핑은 전년동기대비 58.3% 증가. 독립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는 전년동기대비 33.3% 증가

- 방송은 '10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등락을 보이다가 '11년 2분기 큰 폭의 상승 이후 하락세

● 애니메이션/캐릭터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.8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39.5% 하락
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4.3%로 전년동기 대비 4.0%p 감소

- 애니메이션/캐릭터는 '10년 1분기부터 등락을 나타내면서 '12년 1분기는 하락세

● 출판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.9% 증가했으나, 전분기대비 81.7% 하락
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0.5% 전년동기대비 0.1%p 하락

※ 대교 및 예림당의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.6%, 280.0% 증가

- 출판은 '10년 2분기 이후 등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'12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다소 높은 하락세를 보임

● 영화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1.9% 성장했으며 전분기대비 57.6% 상승
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4.5%로 전년동기 대비 3.9%p 상승

※ 영화투자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의 수출액은 '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75.0% 증가했으며 키이스트는 전년동기대비 83.7% 증가

- 영화는 '11년 1분기 전분기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2분기부터 상승세로 반

전되면서 '12년 1분기에는 큰 폭으로 상승

- 음악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9.3%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36.6% 하락
- '12년 1분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0.5%로 전년동기대비 7.7%p 증가
 - ※ CJ E&M 음악부문, 소리바다, SM엔터테인먼트 등 3개 업체의 '12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7.5%, 190.5%, 438.1% 증가해 음악산업 수출액 증가를 주도
- 음악은 '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'11년 1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'12년 1분기에는 다소 하락

<그림> '11년 1분기 vs '12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

